

# 효원인과 함께 만드는 도서관 소망트리

2020.11.30.(월)~2021.1.8.(금)



여러분의 소원을 달아주세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의 소망이나 도서관에 간직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세요

\* 의생명과학도서관은 북카페 공사 관계로 12월 중에 트리 설치 예정입니다.

- 참여장소 : 각 도서관 로비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나노생명과학도서관)
- 참여대상 : 도서관 방문자 누구나



# 온라인 비대면 행사  
# 북토크  
# Turnitin  
# 조정래 작가





똑똑,  
문을 열다

##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01 북토크  
02 Turnitin
- 08**    **특집 기사 온라인, 비대면으로 즐기는 도서관 행사**
- 12**    **효원인 감동공유 조정래 작가 도서**
- 14**    **특별기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힌다**
- 18**    **여기 issue 코로나블루 - 반려동물, 반려식물**
- 20**    **#발견 #이곳 부산대표도서관 '부산도서관'**
- 22**    **시선집중**
- 26**    **소셜 라이브러리 도서관 in SNS**
- 27**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설문원    발행일 2020. 12. 15.  
 편집 김미선, 서소영, 전태경, 정계수, 최덕수    주소 부산시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 <https://lib.pusan.ac.kr/pnublog> )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새벽별도서관 앞 10·16 부마민중항쟁탑



# BOOK TALK

## 북토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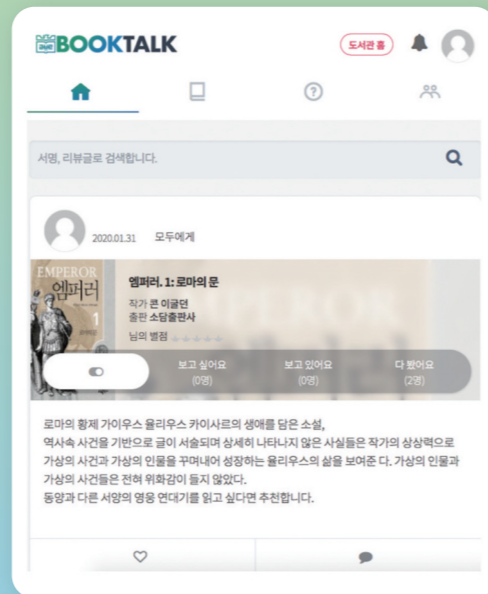
북토크란 SNS 기반의 기능을 활용하여 손쉽게 북리뷰를 작성하는 지식플랫폼으로 해당 글의 공유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도록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부산교육대학교(2019년 참가), 부산외국어대학교(2020년 참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북리뷰가 작성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2,000여건의 서평 데이터가 구축되어 다양한 도서 주제들에 대한 토론 및 지식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 북토크 이용방법

- 부산대학교 북토크 홈페이지 접속(<https://lib.pusan.ac.kr/booktalk>)
  - 도서관 ID/PW로 이용가능
  - 실명 대신에 닉네임 설정 가능
- 리뷰 작성 방법
  - 메인페이지 상단의 <글쓰기> 클릭
  - 글쓰기 하단의 '책검색' 또는 '내서재'(도서관 대출내역 연동)를 통해 도서검색
  - 작성 리뷰는 <모두에게 / 나에게만 / 친구에게> 설정을 통해 공개 범위 지정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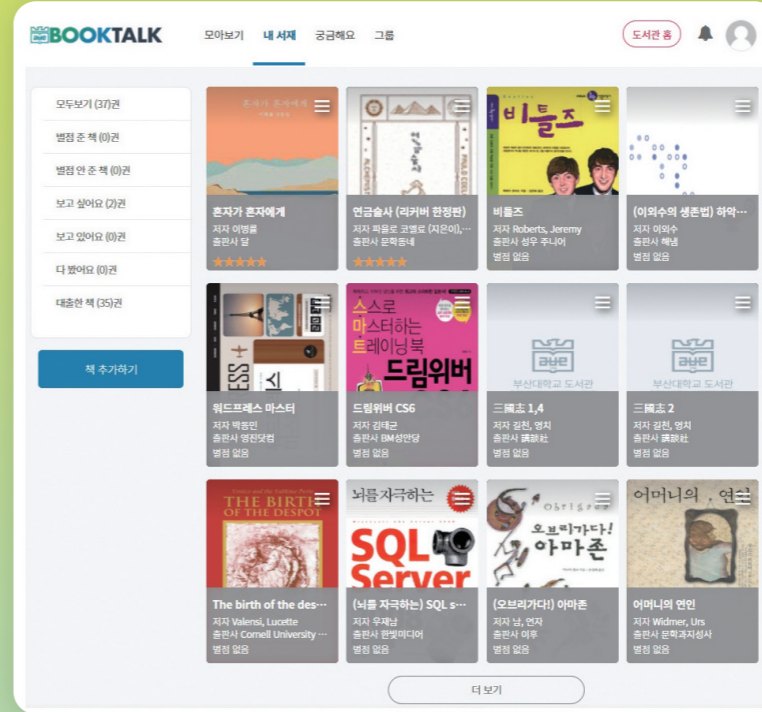


※ 리뷰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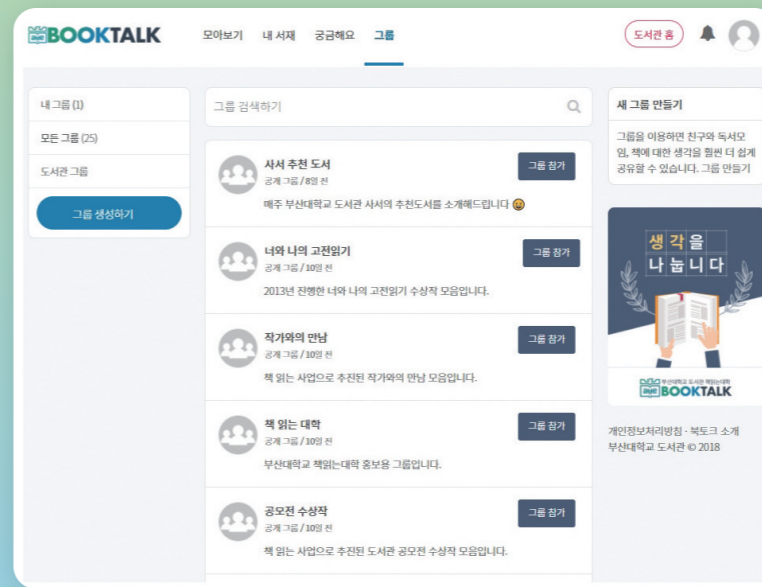


작성 리뷰에 대해 (좋아요, 댓글달기) 가능

- 내 서재 관리
  - 본인의 도서관 대출 내역 자동 추가
  - 북토크 내의 '별점' 및 '보고 싶어요' 등을 통해 관심 도서 등록
  - '책 추가하기'를 통해 도서 검색 후 신규 도서 추가



- 그룹 참가
  - 공동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의 독서 그룹 커뮤니티 생성
  - 본인이 직접 그룹을 생성할 수 있으며, 타 그룹에 참가도 가능



### 북토크 체험단 활동 안내

북토크 사이트의 서평 및 댓글 등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북토크 참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단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리뷰 및 체험 후기 등을 지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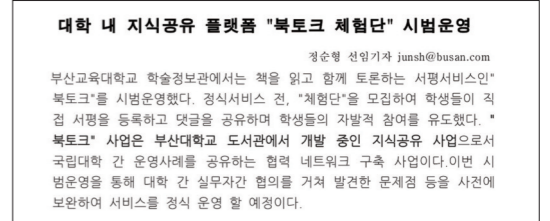
• 체험단 운영 성과



※ 체험단 모집 포스터



※ 북토크 활동 관련 지역신문 기사



### 향후 계획

2021년에는 부산 지역 대학 중 1~2곳을 추가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북토크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체험단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북토크 체험단 뿐만 아니라 교내 구성원 누구나 북토크 참여가 가능하며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능개선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발전해나가는 북토크 사이트로 만들고자 한다.

문의 | 도서관 전산지원팀(051-510-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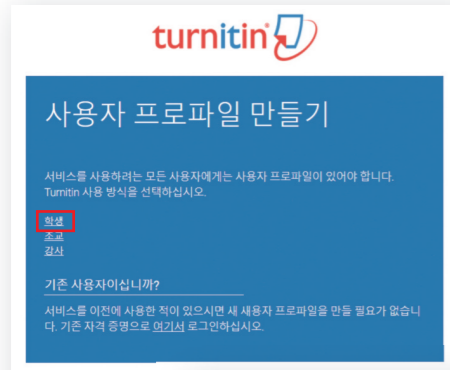


# 턴잇인시스템 사용하기

Turnitin은 전 세계의 학술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웹페이지 등 다양한 학술자료와 제출자가 제출한 논문을 실시간 비교하여 전체적인 유사도 및 동일(유사)한 문장을 확인해줌으로써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서비스이다. 학술논문 투고 또는 학위논문 심사 시 Turnitin 결과를 함께 제출하고 있어 Turnitin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계정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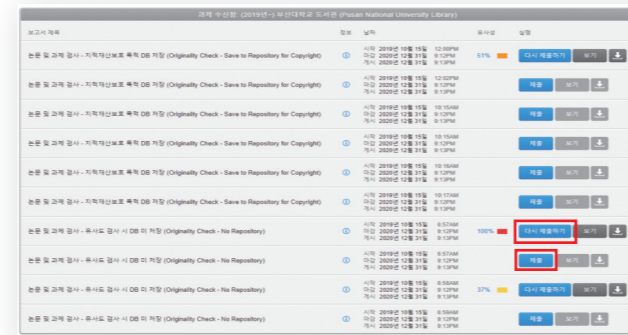
- Turnitin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 부산대학교 도서관 - 학습연구지원 - 표절예방 - Turnitin - Turnitin 홈페이지 바로가기 - 회원 가입 - (신규 계정 만들기)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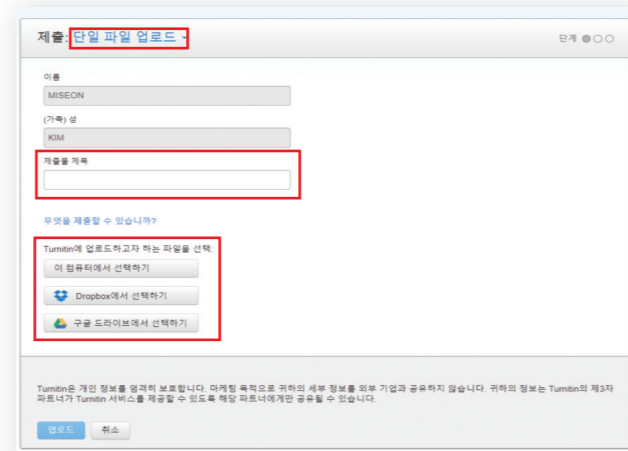
- 클래스 ID와 등록키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 로그인 - 학습연구지원 - 표절예방 - Turniti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 외 first name(이름), last name(성), 이메일, 비밀번호, 보안질문/응답 등을 입력하고, [로봇이 아닙니다] 확인을 수행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 2. 논문 제출하기

- [(2019년~) 부산대학교 도서관] 클래스를 클릭한다.
- [제출] 또는 [다시 제출하기]를 클릭한다.  
※ [제출] 시에는 30분 내외에, [다시 제출하기]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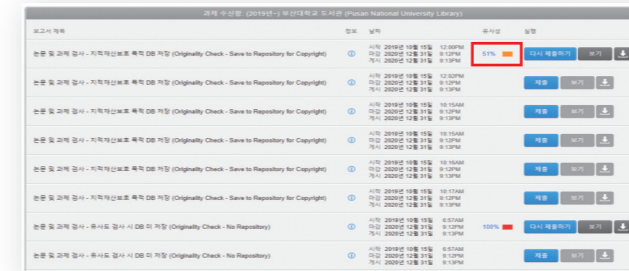


- [단일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다.
- [제출물 제목]은 학위논문 제목을 입력한다.
- 논문 파일을 선택한다.  
※ 제출 가능한 파일의 사이즈는 최대 40MB, 페이지는 최대 400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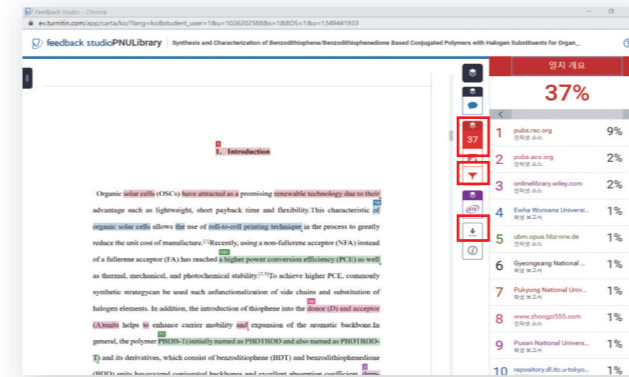


## 3. 결과 확인하기

- 유사도 항목의 결과(%)를 클릭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 결과(%)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창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한다.
- [F] [필터]를 클릭하면 유사도 검사 세부 설정이 가능하다.  
※ [인용문 제외] 직접 인용한 부분(큰따옴표로 묶은 부분)은 유사도 검사에서 제외한다.  
※ [참고문헌 제외] 참고문헌은 제외한다. 단, 참고문헌의 타이틀은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s'로 되어 있어야 한다.
- [D]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결과를 파일로 저장한다.  
※ [현재 보기] 논문 전체 유사도, 일치하는 내용 등을 표기한 결과를 PDF로 저장한다.  
※ [다지털 수렴증] Turnitin에 제출하여 논문을 검사하였다는 확인증을 PDF로 저장한다.  
※ [처음 제출된 파일] 처음 제출한 원본 파일을 저장한다.



### 주의

- 동일(유사) 파일에 대한 유사도 검사는 반드시 하나의 계정에서 실시해야 한다.  
※ 서로 다른 계정에서 동일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검사 시 유사도가 100%로 나타내게 된다.
- 학위논문 심사를 위한 Turnitin 결과는 [다운로드 - 현재 보기]의 PDF를 활용한다. 단, 제출형식(PDF 또는 인쇄)이나 제출방법(전체 또는 일부 페이지)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한다.

# 3분만에 배우는 턴잇인 이용법



<https://youtu.be/Nluj20evAu0>

YouTube 부산대 도서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



**A** 클래스 ID와 등록키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Q** 클래스 ID와 등록키는 [부산대학교 도서관 - 로그인 - 학습연구지원 - 표절예방 - Turniti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몇 % 이상이면 표절인가요?

**Q** 유사도 %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유사도 %가 높으면 표절인지 의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유사도 %가 낮더라도 타인의 창작물을 인용과 출처 없이 도용했다면 표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도 %가 낮더라도 다시 한번 본문에 체크가 된 문장들을 재확인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사도 %에 대한 기준은 학과 또는 지도교수님과 상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 학위논문 심사에 필요한 유사도 검사결과는 무엇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Q** 유사도 결과(%)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창의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이후 나타나는 메뉴 중 [현재 보기]를 클릭하여 유사도 결과를 PDF로 저장합니다. 저장한 유사도 결과 PDF를 제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비대면으로 즐기는 도서관 행사



# ON-LINE

코로나19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다.

여름이 지나면 사그라들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대학 수업도 대부분 온라인 수업 전환되고 캠퍼스도 예전 같지 않게 한산한 모습이다.

2020년 상반기는 도서관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며 도서관도 문을 잠시 닫기도 하고,

단축 운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진행해오던 대면행사를 더 이상 멈출 수는 없기에

도서관도 새로운 방식을 찾기로 하였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부산대 도서관이 진행한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모아 보았다.

## 2020 PNU SF Day 강연회 'SF를 만나다'



**방식** | 현장 강연 + 부산대 도서관 YouTube 채널 실시간 중계 병행

**일시** | 2020. 8. 12.(수), 오후 2시~5시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내용** | • 사회 및 질의응답 진행 박상준 대표(한국SF아카이브)

- 강연1 기후위기, 파국적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 조천호 박사(전 국립기상과학원장)
- 강연2 5% 바다로의 여행 / 권은영 박사(부산대 IBS 기후물리연구단)

**참여대상** | 부산대학교 구성원 및 시민

**참여자수** | 총 157명 (현장 40명, 온라인 1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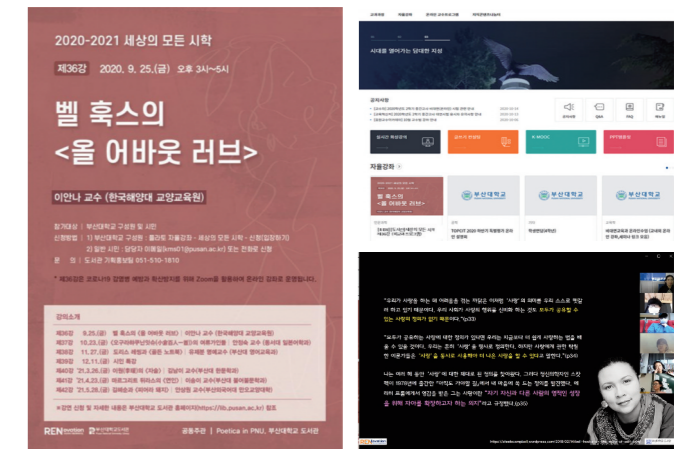
기존의 도서관 대면행사에 온라인 중계방식을 병행한 첫 시도였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이었지만 온라인 참가자의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았고 질의응답도 활발히 진행되어 새로운 변화와 시도였던 온라인 중계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자체 평가가 있었다.



### 참여후기

(중략) 지금도 가속화하는 기후 위기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쉬이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될 것이다. 심해라는 곳은 정치적 기술적인 이유로 우주보다 탐사가 덜 된 미지의 공간이다. 그렇기에 우주보다 훨씬 가깝지만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 시기를 직접 살아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순 없다. 그렇다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 시기를 직접 살아 보지 않은 이상 정확히 알 순 없다. 그렇다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는 상상력이 무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상상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대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것이기에... (2013학번 백\*\*)

## 세상의 모든 시학 제36강 '벨 훅스의 올 어바웃 러브'



**방식** |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연

**일시** | 2020. 9. 25.(금), 오후 3시~5시

**내용** | 벨 훅스의 올 어바웃 러브 / 이안나 교수(한국해양대 교양교육원)

**참여대상** | 부산대학교 구성원 및 시민

**참여자수** | 총 59명

매년 새벽별도서관 오디오리움에서 개최되었던 '세상의 모든 시학'은 코로나19로 1학기 강연을 연기하고 2학기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하였다. 36강은 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PLATO)에 자율강좌를 개설하여 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강연으로 개최하였다. 도서관 이용자 교육장에서 강사님이 강연을 진행하고 담당자가 옆에서 온라인 강좌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할 때는 거리와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직접 강연에 올 수 없었던 양산캠퍼스, 밀양캠퍼스 학생, 병원 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였다.



### 참여후기

교수님께서 매우 밝으신 성격이시고 제가 연애를 하는 입장이라 강의 내용에 흠뻑 빠져들었지만, 중간 중간에 나오는 예시가 강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신선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메인으로 다뤄 주신 벨 훅스의 'All about love'의 책 역시 꼭 빌려보겠습니다...(후략) (2017학번 정\*\*) 코로나로 인해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무료한 일상을 지내고 있었는데 학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중략) 강연을 들으며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비는 시간에 가볍게 들이려고 했던 강연이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020학번 김\*\*)



## PLATO(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 Zoom, Webex 등을 활용한 온라인 이용교육

매년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도서관 이용교육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Zoom을 활용한 실시간 교육과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온라인 형태로 전환 되었다. 특히,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오지 못한 학부 신입생들에게는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미리 도서관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해마다 교육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 되었던 방학특강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년대비 참가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는 혼자서도 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3분 동영상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DB 온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온라인 학습환경에 적합한 도서관 이용교육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세부 프로그램



**1)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자수** 3,610명  
 (이수율 91.2%, 부산캠퍼스 11월 기준)



**2) 방학특강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도서관 학술정보 활용법**  
**참여자수** 총 465명



**3) 표절예방 프로그램 턴잇인(Turnitin) 이용법**  
**참여자수** 총 38명 (실시간 온라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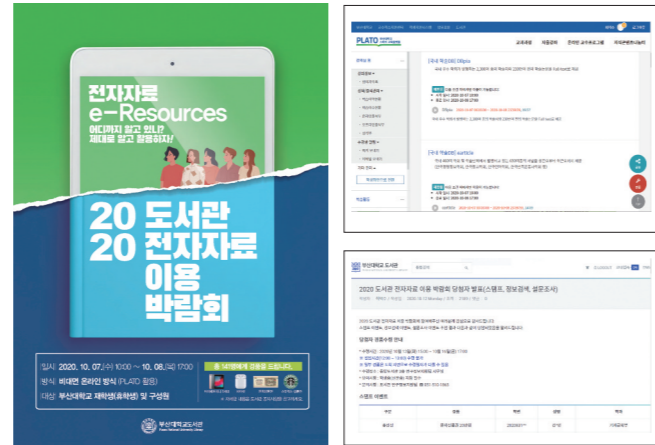


**4) 도서관 학술DB 전문교육**  
**참여자수** 84개 과정 총 473명 (4~11월)

### 참여후기

코로나 때문에 아는 선배, 동기의 조언이 없어서 도서관 이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교육영상을 통해 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니 반복해서 듣고, 필요한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 직접 모이지 않고 동영상만으로도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요점만 말해주셔서 좋았다. 애니메이션처럼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고, 설명이 친절해서 좋았다. **(이용교육 만족도조사 中)**

## 전자자료박람회



**방식** | 비대면 온라인 방식 (PLATO, KSDC DB 활용)

**일시** | 2020. 10. 7.(수), 오전 10시 ~ 10. 8.(목), 오후 5시

- 내용** | 1. 전자자료 이용 안내 동영상 시청 및 체험  
 2. 이용자 이벤트  
 ① 스탬프 이벤트 : 전자자료 이용 안내 동영상 3개 이상 시청(아수) 시지동 응모  
 ② 정보검색 이벤트 : 전자자료 이용 안내 동영상 1개 이상 시청(이수) 후 정보검색 문제 중 3개 이상 정답 제출  
 ③ 설문조사 이벤트 : 전자자료 이용 안내 동영상 1개 이상 시청(이수) 후 설문조사 응답

**참여대상** |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구성원

**참여자수** | 총 4,161명  
 (스탬프 이벤트 1,642명, 정보검색 이벤트 1,203명, 설문조사 1,316명)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대면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한 첫 시도였다. 온라인 참가자의 만족도도 좋았고 특히 2019년 대면행사에 비해 참여자수가 4배에 달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아 많은 이용자에게 부산대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전자 자료를 알리고 이용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

### 참여후기

너무 좋았어요. 4학년 되고부터는 논문 읽을 일들이 많아졌는데, 논문 사이트들 들어가보면 좀 복잡하고... 레퍼런스 쓸 때, 주작업으로 제목, 저자이름, 발행년도 같은거 입력하고 그랬는데 사이트에서 그런 기능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학교와 연계된 학술 DB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네요. 졸업 과제 하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2017학번)** 작년에는 새벽별도서관에서 부스도 차리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 탓에 영상으로 대체되어 조금 아쉽습니다. 기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학번)**

## 저자와의 만남 (김중혁, 이동진 편)

**방식** | 현장 강연 + ZOOM 실시간 중계 병행

**장소** |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참여대상** | 부산대학교 재학생 및 구성원



### 1차 김중혁 작가편

**일시** | 2020. 9. 22.(화), 오후 3시~5시

**주제** | 1분 창의력

**참여자** | 총 133명(현장 30명, 온라인 103명)



### 2차 이동진 작가편

**일시** | 2020. 11. 26.(목), 오후 3시~5시

**주제** | 책, 어떻게 읽을까

**참여자** | 총 200명(현장 50명, 온라인 150명)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신청 할 때 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미리 작성하여 강사에게 전달할 수 있어 충실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온라인 도서구매지원행사

**방식** |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3개 캠퍼스 동시 진행

**일시** | 2020. 10. 13.(화) ~ 10. 14.(수)

**내용** | 1인당 2책까지 도서 정가의 30% 지원

**참여자수** | 사전신청 2,105명 / 실제 도서구입 1,450명(구매관수 2,477권)



매년 단 하루 진행한 도서구매지원행사는 도서가격 할인에 경품 추첨 이벤트까지 있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온라인 방식은 올해 처음 시도해서 참여자들의 문의가 많았다. 부산대 구성원임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작업을 위해 별도의 구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및 사전신청 절차가 필요했다. 또한 사전신청 후 추후 결제일이 따로 있어서 사전신청에 비해 실제 도서구입이 적어서 아쉬웠다.





### 회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 정경래

격변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하는 한국인을  
문학의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표현한다.

도서관에서는 2012년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회원인 감동공유 : 회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를 받고 있으며, 제출된 추천서 중 우수 추천서를 선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된 우수 추천서 중 가장 많이 추천된 두번째 국내 작가는 율해로 등단 50주년 기념을 맞은 조정래 작가이다. 한국문학의 거대한 산맥으로 불리는 조정래 작가의 책 중 회원인이 추천한 책을 소개하고 우수 추천서 글을 공유하고자 한다.



사진출처  
시사IN

### 허수아비춤

조정래 | 문학의문학 | 2010 | 444 p.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36 조73ㄹA]  
추천인 | 신준섭 (수학과)  
선정연도 | 2012년

#### 불균형을 예로 끊임없이 말하며 우리의 시각을 트게 한다

저자는 끊임없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다소 낯선 말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간단하다. "이 땅의 모든 기업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경영을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양심적으로 내고, 그리하여 소비자로서 즐기게 기업들을 키워 온 우리 모두에게 그 혜택이 고루 퍼지고, 또한 튼튼한 복지사회가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사람이 진정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다." ...(중략)... 이 책은 한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한국 경제의 불균형과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며 우리의 시각을 트게 만든다. 문학이 거울이라는 말은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이 도서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을 보여주면서 나의 반성을 촉구하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배우며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성숙해야 할 것을 말해주었다. 누군가 자기계발서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있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 한강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07(제2판) | 10책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36 조73ㄹ2 1~10]  
추천인 | 김승주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연도 | 2013년

#### 대한민국의 역동과 태동의 시기를 직접 경험한 것만 같은 이야기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하지만 각각의 생각과 정서,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노선 등, 이른바 다양한 "색깔"을 가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았다. ...(중략)... 한강은 1959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일면을 고증과 조사를 바탕으로, 4·19, 5·16, 10월 유신과 부마민주항쟁 등을 비롯하여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기 힘든 격동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10권의 책으로 정리해주고 있다. 우리네 조부모님, 부모님께서 겪은 역동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동의 시기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본서는 더욱 가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책 또한 누군가의 시선으로 엮어낸 것이기에 무조건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성인의 표상인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사실의 인식과, 이에 대한 비판 능력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 태백산맥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07(제4판) | 10책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36 조73ㄹ3 1~10]  
추천인 | 박성원 (기계공학과)  
선정연도 | 2017년

#### 분단의 아픔을 인간들의 갈등으로 디테일하게 풀어낸다.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기록이어서 아니 된다'라는 소신으로 글을 써내려간 조정래 작가의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될 무렵이다. ...(중략)... 책을 평소에 전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책에 나오는 단어들이 대부분 쉬운 말들로 되어있고, 소설인 만큼 여러 재밌는 요소들이 많아서 쉬는 시간에도 읽을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다. 이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민족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잘 나타내면서도 인물들의 갈등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낸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읽다 보면, 어느새 제가 소설 속 인물에 감정이입 되었다. '태백산맥'은 분단국가, 그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읽기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빨치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꽤나 충격을 받았다. 하루는 남한군이 이 산을 점령하고, 하루는 북한군이 이 산을 점령하는 상황에서의 산속 주민들의 당한 억압과 희생, 의미 없는 살육, 인간성의 모호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준 충격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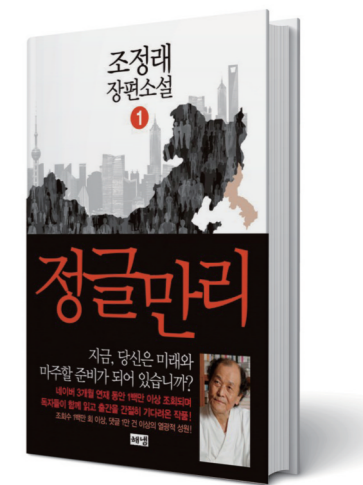


### 정글만리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13 | 3책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36 조73ㄹA 1~3]  
추천인 | 황제연 (조경학과)  
선정연도 | 2017년

#### 중국이라는 실체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을 가져다 준다

오늘날 G2까지 속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 중국에서 일어나는 큰 한줄기의 나무와 몇 개로 나뉘어진 나뭇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또한 그 밑으로는 중국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사건 위주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뭐든지 크고, 넓고, 많은 곳에서 펼쳐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각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중국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하는 것. 그 사이사이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중국 경제의 실체와 대학생들의 대화로 이끌어간 중국 역사와 문화적 사실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다.





# 자랑스러운 역사도 기억하지 않으면 잊힌다

이혜숙·백창민



이혜숙



백창민

‘도서관 여행자’로  
도서관을 구경 다니며  
도서관 이야기와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2,600매 분량의  
‘도서관 그 사소한 역사’를  
연재했습니다.  
두 번째 연재물인  
‘세상과 도서관이 잇은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 대구에서 문을 연 우현서루

1901년 10월 10일 부산에서 문을 연 흥도회弘道會도서관은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으로 이어졌다. 일본인의,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도서관이었지만 이 땅에 출현한 첫 ‘근대도서관’이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1905년, 대구에서 ‘우현서루’友弦書樓라는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우현서루’는 1904년 금남錦南 이동진李東珍이 설립하고 그의 아들 소남小南 이일우李一雨가 운영한 곳이다. 도서관과 학교를 겸한 시설이었다.

우현서루는 대구와 영남은 물론 전국의 인재에게 ‘열린 공간’이었다. 학교조차 드물었던 시절 수많은 책을 갖춰 인재에게 공간을 개방한 우현서루의 시도는 그 자체로 근대적이었다. ‘우현’友弦이라는 이름은 ‘현고’弦高를 벗 삼는다는 말이다. 춘추시대 인물인 현고는 기지를 발휘해 정鄭나라를 구한 사람이다. 우현서루 이름에는 현고 같은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700평 대지에 자리 잡았던 우현서루는 본관과 서고, 별채까지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본관은 강의실, 서고는 도서관, 별채는 기숙사로 쓰였다. 우현서루는 해마다 학생 20~30명을 받아 무료로 숙식을 제공했다. 유명한 강사를 모셔 강연을 열고 우현서루가 수집한 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구의 ‘만권당’ 우현서루와 인수문고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무단통치’를 시작했다.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는 1911년 ‘조선교육령’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우현서루는 1911년 문을 닫았다. 우현서루는 어디에 있었을까? 대구부 팔운정 101-11(지금의 대구광역시 수창동 101-11)에 있었다. 우현서루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은행이 들어섰다. 이 자리에 문을 연 DGB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은 우현서루 옛 모습과 소남 이일우를 건물 외벽에 새겼다. 도서관이 사라진 ‘폐도서관지’廢圖書館址에 지은 건물이 옛 도서관을 기념하는 아주 이채로운 공간이다. 우현서루 장서는 경북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소남 이일우의 손자 이석희李碩熙는 1952년 우현서루 장서 482종 3,937책을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했다.



우현서루 옛터에 세운 DGB대구은행 북성로 지점. 은행 건물 외벽에 우현서루와 소남 이일우 모습을 새겼다 © 백창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인흥에는 남평南平 문씨文氏 세거지가 있다. 남평 문씨는 1910년 ‘인수문고’仁壽文庫라는 문중문고를 열었다. 1910년 설립된 인수문고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우현서루와 인수문고 모두 도서관을 통해 인재를 키워 국권을 되찾겠다는 시도였다. 두 곳 모두 1만 권이 넘는 장서를 소장한 말 그대로 ‘만권당’萬卷堂이었다. 국권 침탈기에 대구에서 일어난 도서관 건립 운동은 눈길을 끈다.

## 우현서루 사람들

우현서루와 관계를 맺은 사람 중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 먼저 설립자인 이일우 집안을 살펴보자. 이일우의 조카가 이상화李相和와 이상정李相定이다.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썼다. 이상화의 형 이상정은 독립운동가이자 장군으로 불렸다. 이상정의 아내 권기옥權基玉은 조선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다. 조선총독부 폭격을 꿈꿨던 비행사 권기옥은 한국 공군 창설에도 기여했다. 소남 이일우 집안 이우 중에 이병학李柄學 집안이 있다. 이병학의 아들 고월

古月 이장희李章熙는 「봄은 고양이로다」를 쓴 시인이다. 이웃이었던 두 집안에서 태어난 시인 이장희와 이상화는 절친했다. 이장희의 유작을 가족이 아닌 이상화가 보관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웠다. 이병학은 대구 지역 친일파 중 손꼽히는 인물이다.

이병학 집안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인물은 이재욱李在郁이다. 이재욱은 이병학의 손자다. 이재욱은 대구고등보통학교와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거쳐 경성제국대학 조선어문학과에 입학했다. 경성제대를 졸업한 이재욱은 1931년 조선총독부 도서관(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에 들어갔다.

## 국립도서관 초대 관장 이재욱

1943년 이재욱은 조선총독부도서관 부관장 지위에 올랐다. 이재욱은 일제강점기 조선 도서관인 중 최고위직에 오른 사람이다. 해방 후 1945년 10월 15일 출범한 국립도서관에서 이재욱은 초대 관장을 맡았다.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봉석朴奉石이 부관장이었다.



LIBRARY, BOOK

한국전쟁 과정에서 이재욱은 박봉석과 함께 ‘납북’되었다. 납북 이후 행적이 끊겼지만 이재욱은 해방 전후 우리 도서관계를 이끌어 간 선구자 중 하나다. 어린 시절 이재욱에게 우현서루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롭다. 한편 일제의 압력으로 문을 닫은 우현서루는 그 후 교남학교嶺南學校를 거쳐 대륜학교大倫學校로 명맥이 이어졌다. 1940년 서병조가 인수한 대륜학교는 지금의 대륜중고등학교(대구 수성구 소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인 이상화는 대륜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교가를 만들기도 했다.

대한민국 사서 1호 이규동

대륜학교 시절 교사 중에 원암圓庵 이규동李揆東이 있다. 이규동은 1945년 해방 이후 대륜중고등학교 교장이 되었다. 그는 대구사범대학을 거쳐 경북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경북대학교 출범 이후 이규동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초대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은 1966년부터 사서 자격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규동은 1966년 2월 2일 ‘준사서’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대한민국 사서 1호’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서 1호’ 이규동이 대륜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일이다. 1947년 8월 체육교사 한 명이 부임해왔다. 그의 이름은 김재규였다. 체육교사 생활을 하던 김재규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 2기로 입교했다. 같은 기수에 박정희가 있었다. 김재규가 대륜중학교를 떠난 후 박선호라는 학생이 입학했다. 박선호는 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해서 군인의 길을 걸었다. 김재규와 박선호, 대륜 출신 두 사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가 졸업한 대구사범학교는 국립 경북대학교로 이어졌다. 대구사범대학은 박정희가 다닌 학교로 1952년 대구농과대학, 대구의과대학과 합쳐 국립 경북대학교가 되었다. 대구사범 시절 박정희를 ‘배출한’ 경북대학교는 영남에서 박정희 반대의 선봉에 섰다. 1970년대까지 영남의 반독재 투쟁은 도시로는 대구, 학교로 보면 경북대학교가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신대학’ 부산대학교

같은 국립대학이었지만 경북대와 달리 부산대는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박정희 체제에 가장 순종적인 대학으로 꼽혔다. 오죽했으면 부산대학교를 ‘유신대학’이라고 했을까. 한때 부산대에 ‘3불’이라는 말이 있었다. 부산대학교 상징인 독수리는 날지 않고, 부산대학교 정문 자유의 종은 울리지 않고, 부산대 학생은 어떤 상황에도 시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북대와 부산대를 폐과 또는 통합시키기도 했다. 1962년 박정희는 대학 정비 명목으로 부산대 법대 학생을 경북대 법정대로 편입시키고, 경북대 문리대에서 폐과된 학생은 부산대로 보냈다. 충남대와 충북대는 합쳐 ‘충청대’를 만들었다. 원상 복구하긴 했으나 박정희 시대 대학정책이 줄속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6년에는 지역 국립대학을 ‘불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전북대·충남대 같은 5개 국립대학교와 제주대·춘천농대·충북대 3개 국립 단과대학을 1973년까지 민간에 팔아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되었다면 부산대학교는 ‘국립’이 아닌 ‘사립’대학이 되었을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왜 도서관에서 터졌을까?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키고 시내로 진출했다.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었다. 부산대에서 시작된 시위는 10월 17일 동아대학교 시위로, 10월 18일 마산 경남대학 시위로 이어졌다.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던 박정희에게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시위는 뼈아팠을 것이다. 1960년 1월 21일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부임한 박정희는 부산에서 쿠데타 계획을 구체화했다. 흥미로운 것은 1979년 10월 부산대와 동아대, 경남대에서 일어난 시위가 모두 ‘도서관 앞’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엄혹한 유신시대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대학도서관이 가진 이런 ‘접근성’은 도서관을 역사의 무대로 변모시켰다. 그 시절 부산과 마산의 대학도서관은 학생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연대의 장소였다. 부산에서 일어난 시위가 마산까지 번지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0월 18일 급히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대학교에 도착한 김재규는 본관으로 쓰인 인문관에 도착해서 학교를 둘러보기도 했다. 당시 부산대학교 캠퍼스에는 공수여단이 진주했고, 인문관 2층은 계엄군 지휘부로 쓰였다. 부산 시위를 살펴본 김재규는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심상치 않은 ‘민란’임을 알아차렸다.

10·26 직전, 부산대를 찾은 ‘남산의 부장’

부산과 마산 상황을 직접 살핀 김재규는 박정희에게 직언을 했으나 그의 충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재규는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남산의 부장’은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10·26은 부산대 도서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터졌다. 김재규의 ‘거사’에 함께 한 여섯 명의 부하 중 한 명이 대륜중학교 제자인 박선호다. 우현서루의 명맥을 이은 대륜중학교 사제가 부마항쟁을 거치며 결국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대륜의 두 사제 덕분에 군사정권에 ‘빼앗긴 들에 봄이 왔다’. 1905년 대구에서 문을 연 ‘도서관(우현서루)의 파장이 74년 후 10·26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으로 귀결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안타까운 건 그렇게 찾아온 ‘서울의 봄’이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로 인해 ‘한국의 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있던 자리에는 건설관이 들어섰다. 건설관 앞에는 “유신철폐 독재타도 민주주의 신새벽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글을 새긴 기념석이 서 있다. 신영복 선생 글씨를 새긴 기념석이 서 있는 건, 이곳이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린 부마민주항쟁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대학도서관 개혁 운동이 펼쳐진 새벽별도서관. 이곳에서 시작된 대학도서관 개혁 운동이 전국 대학도서관으로 퍼져 나갔다 © 백창민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효원별

‘효원별’이라는 이름처럼 부산대학교는 민주주의의 신새벽을 연 역사적인 장소다. 3불의 대학 부산대학교가 긴 침묵을 깨면서 울린 자유의 종소리와 독수리의 날갯짓에,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유신대학’에서조차 ‘유신비판’이 터지는 상황에서 ‘유신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을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대학도서관 개혁 운동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당시 대학도서관 개혁 운동이 일어난 곳은 지금의 ‘새벽별 도서관’이다. 학생이 주도한 이 개혁 운동으로 부산대 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대학도서관에는 여러 변화가 나타났다. 도서관 서가는 ‘폐가제’에서 ‘개가제’로 바뀌고, 검열 받던 장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서로, 서비스는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3불의 하나인 부산대학교 정문 자유의 종을 설계한 사람은 건축가 김중업이다. 김수근과 함께 한국 현대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 바로 그 김중업 말이다. 김중업은 부산대학교 첫 도서관인 ‘효원도서관’도 설계했다. 효원도서관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인다. 부산대학교 박물관 건물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과 더불어 김중업이 설계한 흔치 않은 도서관 건물이다. 10·26 직전 김재규가 방문했던 부산대 인문관은 김중업이 설계한 작품 중 대표적인 대학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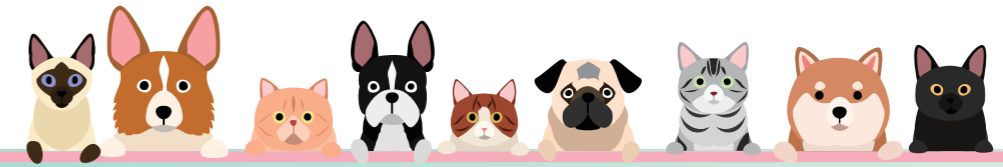


부산대학교 옛 도서관 자리에 세운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 신영복 선생의 글씨를 새겼다. ‘부마민주항쟁 발원지 표지석’은 건설관 앞에 있다 © 백창민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얼마나 알고 기억할까

김중업은 건축가로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다가 박정희 정권 눈 밖에 났다. 그는 와우아파트 붕괴, 광주대단지 사건 같은 박정희 정권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비판했다. 육사 생도의 관제 데모와 애국선열상 건립 계획, 대통령 측근의 동빙고동 호화주택에 대해서도 김중업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부 비판이 이어지자 김중업은 반체제 인사로 분류되어 1971년 11월 가족을 두고 추방당했다. 해외로 추방당한 김중업은 건축가로서 황금 같은 시기를 해외를 떠돌며 지내야 했다. 이렇게 부산대에는 김재규와 김중업의 흔적이 남은 공간이 여럿 있고, 유신체제 종말과 대학도서관 개혁의 깃발이 울렸던 의미 있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에는 수많은 대학도서관이 있다. 그 많은 대학도서관 중 한국 현대사의 ‘역사적 현장’이 된 도서관은 많지 않다. 그 자랑스러운 공간 중 하나가 바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이다. 언젠가 부산대 재학생조차 ‘5·18 광주민주항쟁은 알지만 10·16 부마민주항쟁은 잘 모른다’라는 소식을 접한 적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도 기억하지 않고 되새기지 않으면 잊히기 마련이다. 부산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를 다른 사람이 기억해줄까.





# 코로나 블루 함께 극복하자 반려동물, 반려식물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단어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코로나 블루 극복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운동)하기', '새로운 취미 찾기', '반려동물, 반려식물과 여가 보내기' 등이 소개되고 있다. 반려동물, 반려식물과 함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보는 것은 어떨까?

## BOOK

## MEDIA



###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도록 함께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올바른 먹거리"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영양학

가족과 다른데 있는 우리 집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함께 살기 위해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바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안전한 먹거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영양학과 수의학을 함께 전공한 수의사 왕태미가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영양학 도서를 출간하였다. 균형 잡힌 영양학 정보와 음식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개와 고양이를 위한 반려동물 영양학》은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매우 실용적인 책이다.

왕태미 지음. 어니스트북스. 2018.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636,089 왕832 ㄴ



### 강아지의 몸짓 언어와 표정으로 알 수 있는 키밍 시그널 반려견의 진짜 속마음

반려견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궁금해진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이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우울해 보이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들과 진정으로 교감하고 싶은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해야 좋은지 등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표정과 몸짓으로 언어를 전달하고 소통한다. 즉 반려견의 몸짓 언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 집 댕댕이와의 진정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신간 《반려견의 진짜 속마음》은 이런 반려인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나카니시 노리코 지음. 정영희 옮김. 알에이치코리아. 2019.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636,70887 중53 ㄱ한



### 슬기로운 집사 생활을 위한 고양이 행동 안내서 미아옹철의 묘한 진료실

"세상에 나쁜 고양이는 없다" EBS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 출연 중인 캣통령, 김명철 수의사의 첫 번째 책 《미아옹철의 묘한 진료실》이 출간되었다. 각종 매체를 통해 고양이 집사들에게 '미아옹철'로 알려진 저자는 고양이 문제행동의 원인은 아주 작은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집사가 놓치고 있는 고양이의 문제행동들을 빨리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고양이가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사가 놓치고 있는 고양이의 습성은 무엇인지, 고양이와 집사가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하게 알려주어 우리 집 고양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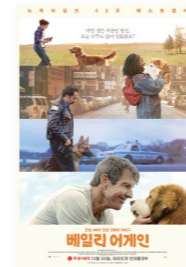
김명철 지음. 비타북스. 2019. /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DM 636,8 겁34 ㄱ



### 식물을 가꾸는 삶, 나를 가꾸는 삶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식물애호가 임이랑이 식물을 가꾸면서 삶이 더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 순간들을 기록한 에세이다. 초보 가드너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실히 써내려온 성장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담긴 29편의 글은 식물의 존재로부터 찾은 삶의 위로, 사나운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노력의 공유다. 임이랑은 작은 새순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 순간이 "삶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하며 식물 키우기를 추천한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지만 자신이 없다는 친구, 회사의 좁은 책상이 삭막하게만 느껴진다는 지인, 마음의 곶이 깊어져 괴롭다는 누군가, 사랑스러운 존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친구에게 식물을 건넨다.

임이랑 지음. 바다출판사. 2020.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8 임69 ㄴ



### 이번 생은 처음인 우리에게 견생 4회차, 베일리의 빅히그 베일리 어게인

귀여운 소년 이든의 단짝 반려견 베일리는 행복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다시 시작된 견생 2회차, 아니 3회차?! 1등 경찰견 엘리에서 찰떡같이 마음을 알아주는 소울메이트 티노까지! 다시 태어날 때마다 성별과 생김새, 직업(?)에 이름도 바뀌지만, 여전히 영혼만은 사랑 충만! 애교 충만! 주인바라기 베일리...

어느덧 견생 4회차, 방랑견이 되어 떠돌던 베일리는 마침내 자신이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고 어딘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조시 게드, 데니스 퀘이드, K.J. 아파, 브라이스 게이샤르, 브릿 로버트슨 주연. 리세 할스트롬. 감독 알스컴퍼니 제작. 2019. 108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73 1765



### 우연한 만남이 희망을 노래한다! 내 어깨 위 고양이, 밥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는 버스킹 뮤지션 제임스는 길거리에서 상처 입은 고양이 밥을 우연히 발견한다. 자신과 같은 처자인 고양이 밥을 위해 생활비를 모두 쏟아 치료해준 후, 여느 날처럼 거리 버스킹 공연을 시작한 제임스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채게 된다. 어느샌가 고양이 밥이 제임스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평생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 속에 제임스는 고양이 밥과 함께 버스킹 공연을 이어나간다. 우연한 만남을 통해 인생의 두번째 기회를 맞이하게 된 제임스와 밥의 버스킹 프로젝트가 계속 되던 중, 이들을 시기한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 둘은 인생의 또 다른 시련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루크 트레더웨이 주연. 로저 스포터스우드 감독. 에프엔씨애드컬처 제작. 2017. 103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42 286



### 견생역전을 꿈꾸는 댕댕이들의 위대한 모험이 시작된다! 언더독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강아지 멍치는 우연히 만난 거리 생활의 고참 짱아 일당을 만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차츰 짱아 무리의 스트리트 라이프에 적응하던 찰나 그들의 소중한 아지트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 주연. 오성운, 이춘백 감독. 인조인간 제작. 2018. 102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30951 17



### 하루 종일 당신만 기다리며 보낼 것 같죠? 마이펫의 이중생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주인바라기 맥스.

어느 날, 자신의 집에 입양견 듀크가 굴러들어오고 맥스는 듀크와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하게 된다. 간식, 밥그릇, 침대, 주인의 사랑까지 빼앗긴 맥스의 일상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급기야 듀크 때문에 뉴욕 한복판을 헤매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루이스 C. K., 에릭 스톤스트리트, 케빈 하트 등 주연. 크리스 리노드 감독. 해리스앤컴퍼니 제작. 2016. 90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30973 64



## 도서관의 도서관 부산대표도서관

# 부산도서관이 탄생하다!

2020년 11월 4일, 부산 시민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산도서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다. 부산도서관은 부산에서 운영하는 최초의 도서관으로서 부산시 소재 도서관들의 정책실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또한 '도서관의 도서관'으로 부산지역 도서관 정책의 허브 역할,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기관을 통한 부산시 공동보존서고 역할, 부산의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운영하는 부산학 도서관의 역할까지 기존 공공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시 대표 도서관이다.

대규모 교육, 문화공간인 부산도서관은 지역내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인 사상구 덕포동에 위치하게 되었다. 실제로 도서관 건립이 결정된 뒤, 주변 전신주 매립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지역의 환경 개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도서관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 총 558억이 투입된 부산도서관은 그에 걸맞게 약 12만여 권의 다양한 자료들과 최신식 시설이 이용자들을 맞이한다. 원목서가와 가구들에 따뜻한 느낌의 조명이 더해져 편안하게 책을 읽고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자료자동반납운송 시스템은 지상1층의 반납함의 자료를 자동으로 분류 후 노스톱으로 해당 자료실로 운송함으로써 첨단시스템을 갖춘 미래도서관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 시설현황

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덕포동)  
규모 | 부지 10,381㎡, 연면적 16,305.44㎡(지하2층, 지상4층)

### 이용방법

운영시간 | 09:00~18:00 (※책마루, 책누리터 화-금 09:00~22: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대출방법 | 본인에 한하여, 책이음 회원증 제시 / 1인 5책 15일간



## B1/B2 공동보존서고, 모듈락극장(227석), 해움마당(회의실), 휴게실



어린이들을 위한 소극장 <모듈락극장>



80석 규모의 회의실 <해움마당>

약 150만 장서 보존이 가능한 부산시 <공동보존서고>

## F1 로비, 꿈뜨락 어린이실



유아-어린이 도서3만여권 보유, 어린이 강좌실, 수유실 등이 마련된 <꿈뜨락 어린이실>



건물 외벽에 위치한 <무인반납기>

자료 자동반납 운송 시스템

### History

- 2014년 9월 부산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6년 12월 부산도서관 명칭, LI(Library Identity) 확정
- 2017년 12월 공사착공
- 2018년 7월 부산도서관 개관(운영) 추진계획 방침 결정
- 2019년 7월 부산도서관 개관 추진단 신설
- 2020년 5월 부산도서관 조직신설 및 건물 준공
- 2020년 11월 부산도서관 개관

## F2 책마루, 디지털존, 전시실, 소담방(동아리·세미나실)



<책마루>

문학, 역사, 청소년 도서가 있는 <책마루>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이 있는 <책마루>



PC 활용과 영화감상이 가능한 <디지털존>

## F3 책누리터, 부산애(愛)뜰, 부산학당(강좌실)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계단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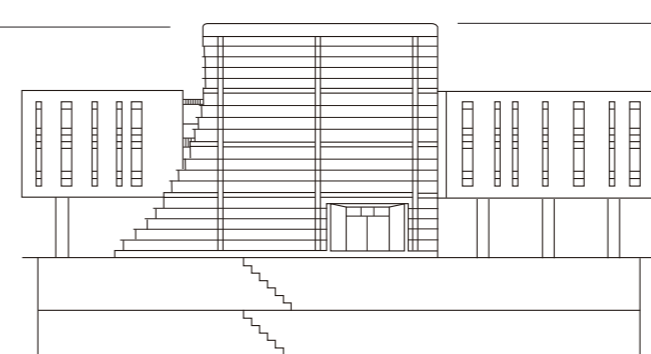
사회과학, 자연·기술과학, 예술, 언어 도서가 있는 <책누리터>



<책누리터>

부산관련 자료가 있는 부산특화자료실 <부산애(愛)뜰>

## F4 카페테리아, 바람쉼터



- 바람쉼터 / 카페테리아 4F
- 책누리터 / 부산애(愛)뜰 / 부산학당 / 사무공간 3F
- 책마루 / 디지털존 / 소담방 2F
- 꿈뜨락어린이실 / 너나들이광장 / 로비 1F
- 공동보존서고 / 모듈락극장 / 해움마당 / 휴게실 B1
- 공동보존서고 / 중앙관제실 B2



# SPECIAL FOCUS 시선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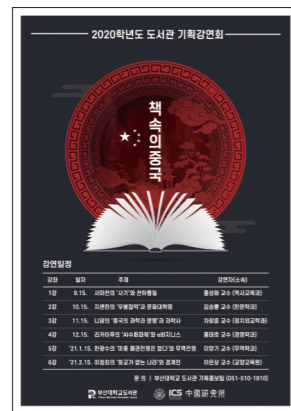
## 특별 전시회 “부마항쟁의 기억, 41년展” 개최



2020년도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사업으로 금정문화회관(부산 금정구 소재)에서 개최한 '정성길 역사화 전시회' 작품을 이동하여 10월 27일(화)부터 11월 13일(금)까지 3주간 새벽별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전시하였다. 10·16 부마민주항쟁탑을 중심으로 민주열사들의 기념비 등이 다수 있어 민주화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새벽별도서관에서 시위 참가자의 눈으로 당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낸 정성길 작가의 작품 전시가 열려 더욱 뜻깊은 전시회가 되었다.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 기획강연회 “책 속의 중국강좌” 신설



올해 9월부터 도서관과 중국연구소가 공동주관하여 도서관 기획강연회 '책 속의 중국(China in Books)' 강좌를 신설하였다. 본 강좌는 부산대학교 스마트 교육플랫폼(PLATO)에서 자율강좌로 운영되며, 매월 15일 오후 1시에 강좌가 업로드되며 학내 구성원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책 속의 중국 강좌는 학내 구성원들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 학자를 비롯해 중국을 남보다 앞서 공부했던 분들의 목소리로 중국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전해주고자 기획되었다. 2020학년도에는 '고요 속의 격랑 激浪, 중국을 읽다'를 주제로 교내 여섯 분의 교수님께서 강좌를 맡아 주제와 관련된 책 소개와 관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 의과대학 조몽 교수 고전자료 기증



우리 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조몽 교수가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온 고서 및 고문서를 지난 6월 26일 우리 도서관 고전자료실에 기증하였다. 기증 자료는 조몽 교수의 선조 문집인 월교선생문집(月峯先生文集) 등 고서 135책과 유묵(遺墨), 간찰(簡札) 등 고문서 627점이다.

이들 자료는 조선 후기 영남지방(김해지역)의 사회생활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향후 교내 구성원들의 연구·학습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

## 의생명과학도서관 북카페 설치



양산캠퍼스 의생명과학도서관은 1~2층 로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가가 있는 쉼의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북카페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도서관의 노후 시설을 스마트 기반의 공간으로 개선하여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며 이용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및 소규모 게더링 방식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개인화와 그룹화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학습 효율성 및 도서관 이용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의] 의생명과학도서관 051-510-8138



## 제3회 김진재 SF 어워드 성황리 종료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김진재 SF 어워드」는 ‘또 하나의 우주, 바다’를 주제로 △문학(시나리오 시놉시스, 단편소설, 에세이) △그림(웹툰, 단편만화) △영상(UCC, 광고, 단편영화) 등 3개 부문에서 총 64개 작품이 출품되었다. 치열한 예선심사를 통과한 7작품(청소년 3작품, 성인 4작품)은 지난 10월 31일(토) DRB Campus D에서 치러진 본선대회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sfc.pusan.ac.kr>)에 업로드되며, 수상작품집으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 수상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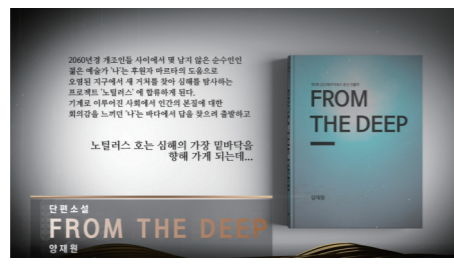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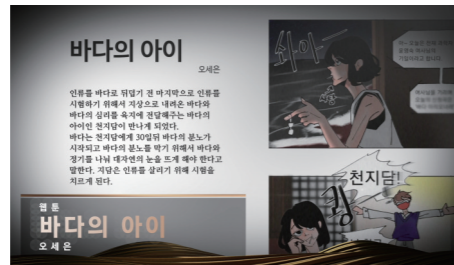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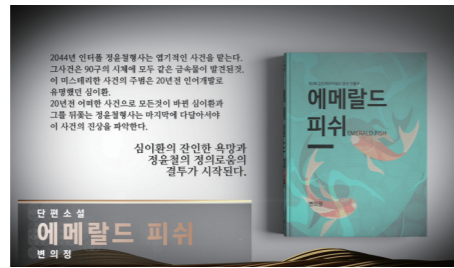
**변의정 (청소년 - 대상)**  
저에게 이번 경험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뿌듯한 기억이 되었고, 앞으로 더 좋은 예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많은 분들의 발표를 들으며, SF라는 장르가 매너악하기만 하다는 시선을 거두고 대중들에게 더욱 다가가, ‘SF가 정말 재미있고 철학적이고 감동적이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배근화 (성인 - 대상)**  
인생에서 겪은 몇 가지 강렬한 기억은 그 사람의 이후의 인생을 크게 바꿔 놓는다고 한다. 첫사랑의 존재만큼이나 강렬한 그 날의 기억이 앞으로 내 인생에서 어떠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결코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리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려본다. 상금 등의 외부적 유인을 떠나서 그날의 그 순수한 짜릿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나는 노력할 것이다. 노력을 존중받고 성과를 인정받으며 느끼는 그 황홀한 감정을 앞으로 더욱 많이 맛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부여로써, 2020년 10월 31일과 ‘김진재 SF 어워드’는 내 기억에 오래 자리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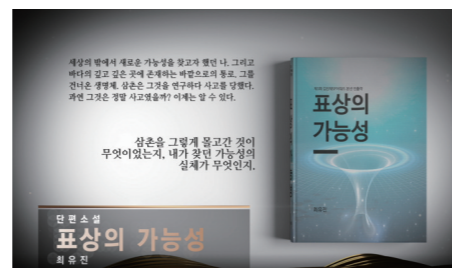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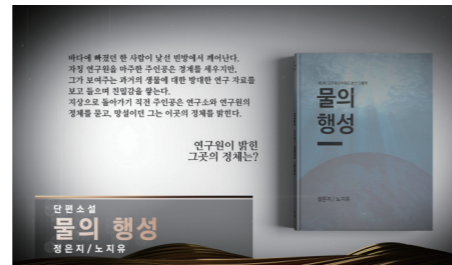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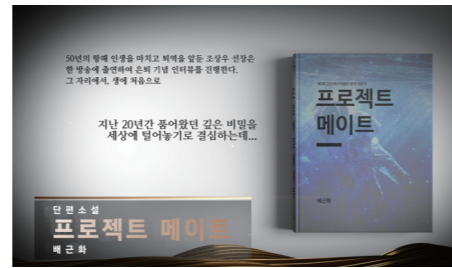
### 수상작 내역

공모부문	시상(상금)	공모분야	작품명	수상자
청소년	대상(150만원)	문학(단편소설)	에메랄드 피쉬	변의정(충북예고)
	최우수상(100만원)	그림(웹툰)	바다의 아이	오세은(광안중)
	우수상(50만원)	문학(단편소설)	FROM THE DEEP	양재원(양산여고)
성인	대상(300만원)	문학(단편소설)	프로젝트 메이트	배근화(부산대 기계공학부)
	최우수상(200만원)	문학(단편소설)	물의 행성	정은지(부산대 바이오산업기공학과) 노지유(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우수상(100만원)	영상(단편영화)	마고	이진형(동덕대 컴퓨터학과) 홍성현(일반인)
	장려상(50만원)	문학(단편소설)	표상의 가능성	김진영(동아대 응용생물공학과) 최유진(부산대 화공생명공학전공)

### 청소년 수상작



### 성인 수상작



## 부산대학교 연구성과 보고서 발간

부산대학교 및 국내 주요 대학의 질적 양적 연구 수준을 파악하고 부산대학교의 위상 확인과 대학 발전의 주요 지표 활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은 2008년부터 『부산대학교 연구성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연구자/단과대학/학과별 SCI급 논문 통계분석, SCI급 학술지 현황 분석, Scopus 논문 기준 학문분야별 타 대학과의 비교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1월,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2019년 한 해 동안 게재한 SCI급/Scopus 연구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그 중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최근 10년간 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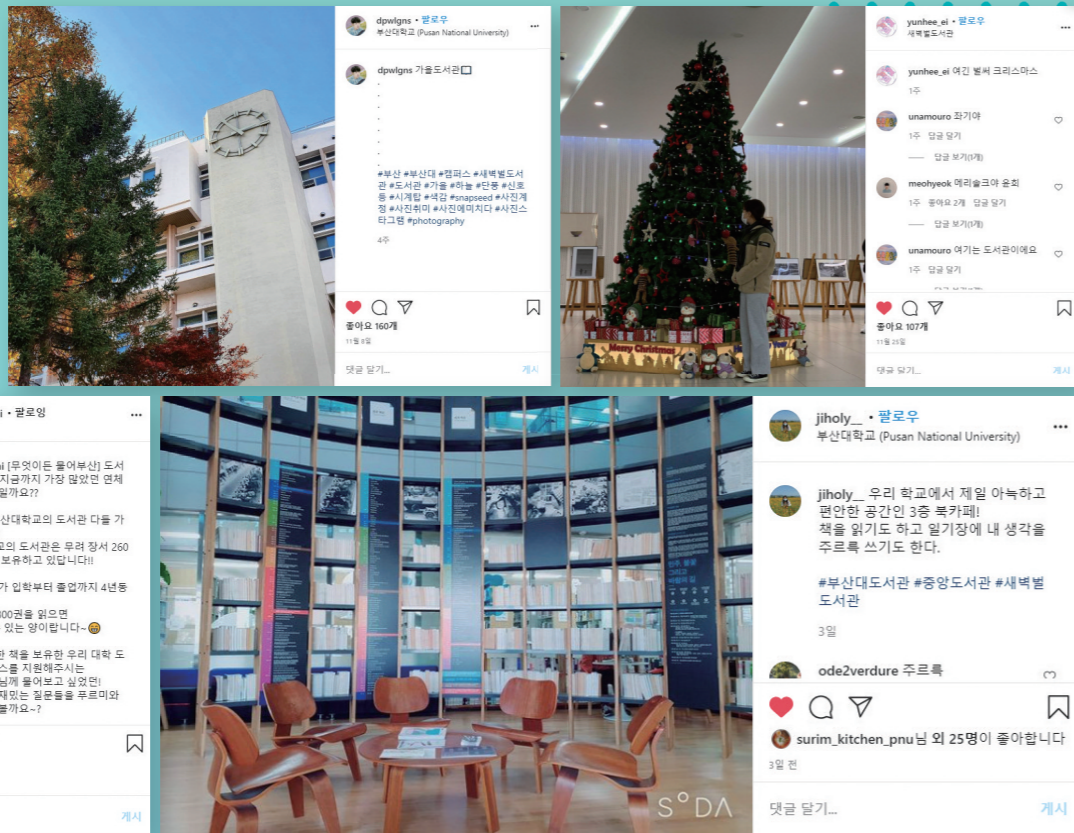
### 부산대학교 연구자의 NATURE, SCIENCE, CELL 학술지 게재 현황

번호	논문제목	학술지명	발행년도	부산대 저자명	소속
1	A Cellular Taxonomy of the Bone Marrow Stroma in Homeostasis and Leukemia	CELL	2019	이동준	의과학과
2	Pantropical climate interactions	SCIENCE	2019	말테 스테커	IBS기후물리연구단
3	Human origins in a southern African palaeo-wetland and first migrations	NATURE	2019	TIMMERMANN AXEL, 이순선	IBS기후물리연구단, 환경연구원
4	Mediterranean winter rainfall in phase with African monsoons during the past 1,36 million years	NATURE	2019	TIMMERMANN AXEL	IBS기후물리연구단
5	El Nino-Southern Oscillation complexity	NATURE	2018	윤경숙, 이준이	환경연구원
6	A metabolite-derived protein modification integrates glycolysis with KEAP1-NRF2 signalling	NATURE	2018	윤화영	약학부
7	De novo NAD(+) synthesis enhances mitochondrial function and improves health	NATURE	2018	류동렬	한의학학과
8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alters cell wall glycosylation to evade immunity	NATURE	2018	이복률, 김선화	약학부
9	Assessing whether the 2017 M-w 5.4 Pohang earthquake in South Korea was an induced event	SCIENCE	2018	김광희, 강수영, 서우석	지질환경과학과
10	Integrated genomic characterization of oesophageal carcinoma	NATURE	2017	박도영	대학병원
11	Global Lambda hyperon polarization in nuclear collisions	NATURE	2017	유인권, 오근수	물리학과
12	A gravitational-wave standard siren measurement of the Hubble constant	NATURE	2017	이창환, 김영민, 조희석	물리학과
13	The brain's functional network architecture reveals human motives	SCIENCE	2016	설선혜	심리학과
14	Testing the mid-latitude hydrologic seesaw Reply	NATURE	2015	임현수	지질환경과학과
15	Measurement of interaction between antiprotons	NATURE	2015	유인권, 오근수	물리학과
16	Mid-latitude interhemispheric hydrologic seesaw over the past 550,000 years	NATURE	2014	임현수	지질환경과학과
17	Comprehensive molecular characterization of gastric adenocarcinoma	NATURE	2014	박도윤	의과학과
18	A type I-secreted, sulfated peptide triggers XA21-mediated innate immunity (Retraction of vol 326, pg 850, 2009)	SCIENCE	2013	서영수	미생물학과
19	A Cenozoic record of the equatorial Pacific carbonate compensation depth	NATURE	2012	히로유키 타카타	연안환경시스템사업단
20	Observation of the antimatter helium-4 nucleus	NATURE	2011	유인권, 최경연, 오근수	물리학과
21	Intravenous delivery of a multi-mechanistic cancer-targeted oncolytic poxvirus in humans	NATURE	2011	황태호, 제지은, 이연숙	의학과
22	Light-Controlled Self-Assembly of Semiconductor Nanoparticles into Twisted Ribbons	SCIENCE	2010	이재범	광메카트로닉스공학과
23	Observation of an Antimatter Hypernucleus	SCIENCE	2010	유인권, 이창환, 최경연, Grube, B.	물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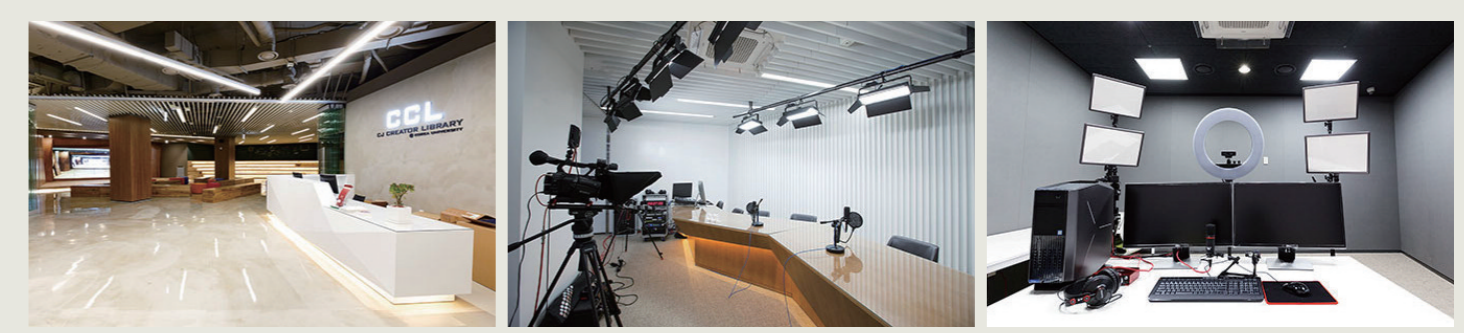


# Hello 도서관 in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 중에서 #부산대도서관 #새벽별도서관 등으로 태그된 부산대 도서관을 찾아보았다.



##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 고려대학교 도서관의 CCL (CJ Creator Library)

고려대학교 도서관 지하 1층에 CJ 그룹의 후원으로 2017년에 CJ Creator Library가 만들어졌다. 접근성이 높은 중앙광장 지하1층에 위치한 CCL은 1인 방송 및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스튜디오와 동아리 공연,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는 이벤트홀, 학생들이 바닥에 누워서 공부하고 휴식하는 마루쉼터, 사용인원에 따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룹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대 도서관  
인스타그램  
팔로우 EVENT

참여기간 2020.11.18.~12.2.

#부산대도서관 #부산대도서관인스타그램 #팔로우이벤트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회원인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 도서관 인스타그램 팔로우 1,00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벤트에 참여 댓글 400여개가 등록되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 4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부산대도서관 공식 인스타그램

부산대도서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생겼습니다! 본인 SNS에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관련된 사진과 아래 해시태그를 함께 올려주세요.

도서관 in SNS에 선정된 분께는 도서관에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부산대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중양도서관

발전기금 문의 | 051-510-3820  
자료기증 문의 | 051-510-7600

## 부산대학교의 대표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지성과 학문이 무르익어 가는 곳, 대학 대학의 상징, 바로 도서관

지적 호기심을 가진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새벽별의 기상이 펼쳐지는  
부산대학교 랜드마크가 될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